

## 거짓말의 특징에 대한 신념

- 경찰관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

조은경 이미선 김재홍  
한림대학교

본 연구는 경찰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짓말의 특징에 관한 신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122명과 대학생 160명에게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음성적 특징, 비언어적 특징, 그리고 진술 내용의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술 내용의 특징에 관해서는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에 포함된 진술 특징을 사용하였고 거짓말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자신의 거짓말 행동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 경찰관과 대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들킬 확률은 낮게 추정했지만 타인의 거짓말을 탐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낮았다. 두 집단 모두 거짓말의 음성적 특징과 진술 특징에 대한 신념은 비교적 정확했지만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찰관과 대학생의 거짓말에 대한 신념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특징에 대한 신념은 실제 거짓말을 하는 범죄 용의자가 나타내는 특징과 피리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끝으로 거짓말의 특징에 대한 부정확한 신념에 기초해서 타인의 속임을 탐지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거짓말, 거짓말 신념, CBCA, 경찰관

사람들은 타인이 거짓말할 때 어떠한 언어적, 비언어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혹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고대 서남아시아 제국의 수도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답변의 거부’나 ‘불안한 태도’, ‘안색의 변화’, ‘엄지발가락을 비비는 행위’ 등을 거짓의 행동 징후로 새겨 놓고 있다(송광섭, 1997).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행동 특징들은 현대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시선을 회피하고, ‘정돈 행동(grooming gesture : 옷의 보

푸라기 같은 것을 뽑거나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며 움직임은 증가할 것이라는 신념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은 거짓말 탐지 전문가와 일반인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난다(Vrij & Semin, 1996).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 나타나는 단서들에 대한 믿음은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실시된 거짓말에 관한 신념 연구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Vrij, 2000, p58). Vrij(2000)가 거짓말에 대한 신념 연구들을 개관해본 결

조은경은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이미선, 김재홍은 동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음.

본 연구는 1998년도 한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지원되었음.

교신저자 : 조은경,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3) 248-1722,

E-mail : ekjo@hallym.ac.kr

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리며 말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시선을 회피하고 잘 웃으며, 눈 깜박임이 증가하고 손발의 움직임과 자세의 변화가 증가한다고 믿고 있었다. 거짓말 할 때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불안 정서의 지표이다. 즉,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불안해지기 때문에 불안의 증후를 통해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참/거짓을 구분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릴까봐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진짜 거짓말쟁이가 있는 반면, 자신의 진실된 입장을 상대방이 믿어주지 못할까봐 불안한 경우도 있다. Ekman(2001)은 결백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까봐 나타내는 불안의 징후들을 거짓말의 징후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오델로의 오류(Othello’s error)’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 기존 연구의 거짓말 특징에 관한 신념

거짓말 지표	기존 연구 결과 (지지 수 / 연구 수)
<b>음성적 특징</b>	
목소리 톤이 올라감	7 / 10
말을 머뭇거리림	15 / 20
말실수 증가	14 / 19
말의 속도가 느려짐	6 / 13
질문 응답 지연시간 증가	10 / 12
침묵 기간 증가	3 / 3
침묵 빈도 증가	4 / 4
<b>비언어적 특징</b>	
응시회피	18 / 22
미소 증가	11 / 18
눈 깜박임 증가	4 / 6
정돈 행동 증가	13 / 21
설명적 손동작 증가	10 / 17
손/손가락 움직임 증가	5 / 6
다리/발 움직임 증가	9 / 13
머리움직임 증가	4 / 12
몸통 움직임 증가	8 / 10
자세 바꾸기 증가	11 / 14

출처 : Vrij(2000)  
지지 수는 해당 지표가 연구된 사례 중 해당 지표가 신념에서 확인된 연구의 숫자이다.

거짓말을 할 때는 정서적 각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지에 대해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말해야 하는데서 오는 ‘인지적 복잡성’과 거짓말을 하는 동안 자신이 나타내는 신호들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나타난다(Vrij, 2004).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눈 깜박임’은 거짓말 할 때 정서적 각성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Harrigan & O’connell, 1996), 인지적 복잡성으로 인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Wallbott & Scherer, 1991).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 나타난다고 믿는 단서들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신념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Mann, Vrij, 그리고 Bull(2002)은 살인,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6명의 용의자들을 조사한 내용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이들의 행동을 연구하였다. 용의자들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한 후 자백을 한 사람들이었다. 연구자들은 비디오 녹화된 용의자의 진술 중 거짓임이 드러난 용의자의 진술 부분(35개)과 진실이 확실한 진술 부분(27개)을 편집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특징들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될 경우 중형을 받게 되는 높은 이해득실(high-stake) 상황에서의 거짓말을 관찰한 것으로서 결과의 심각도가 크지 않은 실험실 연구보다 더 높은 현실타당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Mann 등의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할 때 나타난다고 보는 응시회피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행동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범죄 용의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대화 도중 침묵 기간이 증가하고, 손과 팔의 움직임은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진실을 말하는 경우보다 거짓말을 할 때 눈 깜박임이나 응시회피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Vrij와 Mann(2001)도 살인 용의자의 면담 과정을 분석하여 이와 비슷한 결과를 관찰하였다. 위와 같은 실제 범죄 용의자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의 지표라 생각하는 언어적, 음성적 특징은 비교적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만,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은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은 손/손가락, 발/다리 몸통,

머리 등의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실제로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거짓말의 지표와 거짓말에 대한 신념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인이 거짓말 할 때 나타내리라고 기대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특징에 의지하여 평가하게 되며, 이는 대인 상호작용과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경찰관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거짓말쟁이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며, 그들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것을 실패할 때 결과의 파장은 더욱 크다. 열 명의 유죄인 사람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정책의 대원칙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거짓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처벌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의 거짓말 탐지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더 뛰어난 것이라는 생각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지 못했다(Kraut & Poe, 1980; DePaulo & Pfeifer, 1986; Kohnken, 1987; Ekman & O'Sullivan, 1991). Ekman과 O'Sullivan(1991)의 연구에서 세관원, 경찰관, 첩보요원, FBI 요원, 판사, 범죄심리학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한 사람의 비디오를 보고 진위를 판단하게 한 결과, 첩보요원들만 평균 64%의 판단 정확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집단들은 정확도가 우연의 수준(50%)을 넘지 못하였다.

경찰관의 거짓말 탐지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뛰어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거짓말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단서들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Vrij와 Semin(1996)은 수사경찰관, 방범경찰관, 세관원, 교도관, 죄수, 학생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 단서에 대한 신념을 연구한 결과 학생들과 전문적인 거짓말 탐지자(경찰, 세관원, 교도관) 사이에 매우 유사한 신념이 발견되었으며, 오히려 죄수 집단이 가장 우수한 거짓말의 행동단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수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체험한 결과로 거짓말의 행동단서에 대한 정확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연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Ekman과 O'Sullivan(1991)의 연구에서 첩보 요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거짓 진술자에 대한 탐지 정확도가 높았던 것도 첩보 요원이라

는 직업 특성상 자신 혹은 타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거짓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찰관 등 거짓말 탐지 전문가들은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탐지 능력에 대한 확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rij, 2004). 이는 자신이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사용하는 단서들에 대한 믿음이 더 큰데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거짓말에 대한 판단은 음성적 특징이나 비언어적 특징 뿐만 아니라 진술의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거짓 여부 판단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진술의 내용이 아닐까 싶다. 일회적으로 만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술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친숙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진실할 것이라고 믿는 진실 편향(truth bias)이 작용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표현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진술의 내용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조은경, 2002). 사람들이 진술 내용의 어떤 특징들을 고려하여 진실 혹은 거짓임을 판단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거짓말에 대한 신념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진술 내용을 고려하여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진술분석(statement analysis)이다. 진술분석 기법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CBCA)은 원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발달하였다. CBCA는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진술은 허구 또는 상상에 기초한 기억과는 내용과 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Undeutsch(1984)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19개 준거로 체계화되었다(Steller, 1989). 표 2에 나타난 19개의 CBCA 준거들은 모두 진실의 지표로서, 만약 진술 내용이 CBCA 준거들을 충족시킨다면 그 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Vrij(2005)는 실제 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4개 연구와 1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 그리고 17개의 실험실 연구를 종합하여 CBCA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실 연구는 비디오로 녹화된 사건을 보여주고 이

를 목격한 목격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한 연구들이었는데, 실험 참가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Vrij가 분석한 결과, CBCA 총점에 있어서는 12개의 연구 중 11개에서(92%) 진실한 진술의 CBCA 총점이 거짓 진술의 총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면 ‘세부묘사의 양(3번)’은 가장 큰 경험적 지지를 얻었는데 20개의 연구 중 16개(69%)의 연구에서 진실한 집단이 거짓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상의 깊이(4번)’와 ‘이야기의 재현(6번)’은 16개의 연구 중 11개(69%)의 연구에서 진실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구조화되지 않은 이야기 제시(2번)’ 역시 14개의 연구 중 9개(64%)의 연구에서 진실한 아동의 진술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독특한 세부묘사(8번)’, ‘상호작용의 기술(5번)’, ‘논리적 일관성(1번)’이 53%의 연구에서 지지를 얻었다. 반면 ‘자기비난(17번)’과 같은 경우 모든 연구에서 진실과 거짓 진술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하게 보고되었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10번)’의 경우도 8개의 연구 중 단지 1개의 연구에서만 지지를 얻었다. 따라서 CBCA 총점과 CBCA의 개별 증거들 중 일부는

경험적 지지를 받았으나 다른 증거들은 진실한 진술에서 반드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CBCA에서 진실의 근거로 고려하는 증거들 중 어떤 것들은 일반 사람들의 믿음에서는 오히려 거짓 진술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이야기의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거나(2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시인하거나(15번), 또는 자기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16번)하는 것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면 CBCA에서는 진술이 진실하다고 평가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Vrij, 2000). 과연 진실한 진술의 특징이 거짓 진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될 것이다.

허위 진술을 할 때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CBCA 증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두 개의 연구(Akehrst, Kohnken, Vrij, & Bull, 1996; Taylor & Vrij, 1999) 결과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CBCA에 대한 신념이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kehrst 등(1996)의 연구에서 사

표 2. 증거 기반 내용 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의 19개 증거들

1. 논리적 일관성 :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2.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 진술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산발하여 나타남
3. 세부묘사의 풍부함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의 상세한 묘사
4. 맥락상 깊이 : 사건이 나타나는 맥락의 정보가 풍부하게 주어짐
5. 상호작용 기술 : 가해자와 관련된 상호작용
6. 대화의 재현 : “ ”로 대화를 축약적으로 재현
7. 사건 동안 예기치 않은 일 발생 : 사건 중 예상치 못한 중단 또는 어려움, 종료
8. 독특한 세부묘사 : 사건, 물체, 가해자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
9. 부가적인 세부묘사 :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묘사
10. 정확하게 보고 했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 : 면담자는 이해되거나 목격자는 이해하지 못함
11. 관련된 외적 연합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진술
12. 주관적 정신상태 묘사 : 사건 당시 주관적인 인지, 정서 상태 평가
13.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귀인 : 가해자의 인지적, 정서 상태 추론
14. 자발적인 수정 : 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정
15. 기억의 부족 시인 : 기억의 부족을 자연스럽게 시인. 단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것은 아님
16. 자기 진술에 관한 의심제기 : 자신이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믿지 못할 것에 대한 의심, 걱정
17. 자기 비난 :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혐의를 초래할 수 있는 묘사
18. 가해자 용서 : 범죄자의 행동을 해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진술
19. 범죄 특징의 세부묘사 : 특정범죄에 전형적인 형태를 묘사

람들은 ‘논리적 일관성’, ‘세부묘사의 풍부함’, ‘가해자에 대한 정신상태 귀인’ 등은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며 이 외 특징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Taylor와 Vrij(1999)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특징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단지 ‘자기 진술에 의심을 제기하는 것’만이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서양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한 신념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신념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신념이나 신념의 효과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단서에 관한 신념과 진술의 내용 특징에 대한 신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이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거짓말에 대한 판단이 업무의 중요한 특성으로 여겨지는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을 비교하여 신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경찰관과 일반인이 거짓말에 대해 비슷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 중 부정확한 신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관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방 법

### 참가자

강원도 소재 종합대학교 학부생 160명과 전국 지역 일선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12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남자가 65명(40.6%), 여자가 92명(57.5%),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피험자가 3명(1.9%)이었으며 모두 미혼이었다. 경찰관은 남자 109명(89.3%), 여자 12명(9.8%), 그리고 미혼이 12명(9.8%), 기혼은 110명(90.2%)이었다. 나이는 대학생이 평균 21.5세(표준편차=2.60), 경찰관은 평균 38.8세(표준편차=7.51)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의 근무경력은 평균 13.7년(표준편차=6.88)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29년이었다. 근

무경력 중 수사경력은 별도로 물어보지 않아서 확인되지 못했다.

### 측정 도구

설문지는 지금까지 거짓말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음성적·비언어적 특징들과 CBCA 준거들, 그리고 거짓말과 관련된 고정관념들로 구성되었다. 음성적 특징은 ‘말을 머뭇거림’, ‘말실수’, ‘목소리 톤’, ‘말의 속도’ 등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7개의 음성적 특징으로 구성되었다. 비언어적 특징은 ‘시선 마주치기’, ‘미소 짓기’, ‘손/손가락 움직임’, ‘다리/발 움직임’ 등 10개의 비언어적 행동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음성적·비언어적 행동 특징 각각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적게 나타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차이가 없다”의 3가지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CBCA의 경우 “어떤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특정 사건을 목격자 혹은 피해자로서 진짜 경험한 뒤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때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허위로 꾸며서 이야기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적 이야기에서는 꾸며낸 이야기에 비해서 각 특징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 혹은 더 적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라는 지시문을 읽은 후 각각의 CBCA 준거에 대해 “사실적 진술에서 증가한다”, “허위진술에서 증가한다”, “차이가 없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개별 준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2번(이야기가 비구조화 됨)은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일목 정연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진술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며, 7번(사건 동안 예기치 않은 일 발생)의 경우 ‘사건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사건 진행에 차질이 생김’이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거짓말에 대한 기타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거짓말에 대한 고정관념 7가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예 : ‘여자가 남자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 ‘남자의 거짓말은 여자보다 더 잘 발각된다’, ‘거짓말은 자꾸 하면 습관이 된다’ 등). 거짓말에 대한 고정관념 문항들은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달에 거짓말하는 빈도, 자신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발각되기 쉬운지, 자신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얼마나 잘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 결 과

#### 거짓말 빈도

한달 평균 거짓말의 빈도에서 경찰관은 한달에 최소 0번에서 최대 300번까지, 대학생의 경우 한달에 5번에서 200번까지 거짓말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찰관은 평균 20.92번(표준편차=51.66), 대학생은 25.63번(표준편차=34.54)으로 두 집단간의 평균 거짓말의 빈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54)=-.87, n.s.$ ). 또한 성별, 나이, 결혼 상태와 거짓말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3. 한달 평균 거짓말 빈도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최소값/최대값
경찰관	20.92 (51.66)	5.0	0/300
대학생	25.63 (34.54)	12.0	5/200

#### 거짓말에 대한 고정관념

거짓말에 대한 대학생과 경찰관의 고정관념은 표 4와 같다. ‘여자가 남자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경찰관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43.8%로 가장 많았던 반면, 대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수가 42.8%로 두 집단간의 응답 빈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chi^2(2)=6.35, p<.04$ ). 또한 ‘남자의 거짓말이 여자의 거짓말보다 더 잘 발각된다’에 대해서는 다수의 경찰관(71%)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생들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나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찰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15.19, p<.001$ ). 또한 ‘청소년의 거짓말은 성인보다 더 알아내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지만(각각 77.7%, 66.3%),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28.1%)이 경찰관(5.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7.78,$

표 4. 거짓말에 대한 고정관념 (단위 : %)

		집 단		전체	$\chi^2$
		경찰	대학생		
여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	그렇다	43.8	29.6	35.7	6.35*
	아니다	19.8	27.7	24.3	
	모르겠다	36.4	42.8	40.0	
남자의 거짓말이 더 잘 발각 된다	그렇다	71.1	48.8	58.4	15.19**
	아니다	11.6	26.3	19.9	
	모르겠다	17.4	25.0	21.7	
거짓말은 할수록 더 잘한다.	그렇다	56.2	55.6	55.9	.53
	아니다	33.1	29.4	31.0	
	모르겠다	10.7	15.0	13.2	
거짓말은 할수록 버릇이 된다	그렇다	91.7	88.8	90.0	.50
	아니다	4.1	7.5	60.0	
	모르겠다	4.1	3.8	3.9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있다.	그렇다	51.2	41.9	45.9	5.57
	아니다	33.1	46.9	40.9	
	모르겠다	15.7	11.3	13.2	
청소년의 거짓말은 알아내기 더 어렵다	그렇다	16.5	5.6	10.3	27.78**
	아니다	77.7	66.3	71.2	
	모르겠다	5.8	28.1	18.5	

\* $p<.05$ , \*\* $p<.001$

$p<.001$ ). 이 외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들키지 않고 더 잘하게 된다.’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각각 56.2%, 55.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거짓말은 할수록 버릇이 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했으며 경찰관(91.7%)과 대학생(88.8%) 간에 차이가 없었다( $\chi^2(2)=1.39, n.s.$ ).

#### 자신의 거짓말 발각, 타인의 거짓말 탐지

본인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발각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경찰관(68.4%)과 대학생들(71.1%)은 ‘거의 발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발각되지 않는다’ 또는 ‘항상 발각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신념에서 경찰관과 대학생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chi^2(3)=5.15, n.s.$ ). 반대로 타인이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알 수 없다’ (52.3%) 또는 ‘대부분 알 수 있다’(45.1%)를 선택하여 반신반의 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 역시 경찰관과 대학생간 차이는 없

표 5.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될 가능성 (%)

	집 단		Total
	경찰관	대학생	
전혀 발각되지 않는다	0.9	4.4	2.9
거의 발각되지 않는다	68.4	71.1	70.0
대부분 발각된다	28.1	23.9	25.6
항상 발각된다	2.6	0.6	1.5

표 6. 타인의 거짓말을 탐지할 가능성 (%)

	집 단		Total
	경찰관	대학생	
전혀 알 수 없다	1.7	2.5	2.2
대부분 알 수 없다	54.7	50.6	52.3
대부분 알 수 있다	43.6	43.6	45.1
거의 항상 알 수 있다.	0.0	0.6	0.4

였다( $\chi^2(3)=1.25, n.s.$ ).

종합해보면, 경찰관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거짓말은 ‘거의 발각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반면, 타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 있다와 탐지할 수 없다고 양분되어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의 음성적 특징에 대한 신념

거짓말의 음성적 특징에 대한 신념을 알아본 결과 경찰관과 대학생이 모두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말을 할 때 각 특징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다. 즉, 거짓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할 때보다 말을 더 많이 머뭇거리게 되고, 말실수가 증가하며, 목소리 톤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말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질문에 대답하기까지의 지연시간은 길어지며, 말하는 도중 침묵 시간이 길어지고 침묵의 빈도도 증가한다고 생각하였다. 전체적인 신념의 방향은 경찰관과 대학생 집단이 일치하였지만 말실수를 제외한 응답의 분포에서 두 집단이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부분 대학생 집단이 거짓말과 진실간에 음성적 특징의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더 많이 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말을 할 때 말을 머뭇거리고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응답지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음성적 특징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지만 이들 지표에서 거짓과

표 7. 거짓말의 음성적 특징에 관한 신념 (단위 : %)

		거짓말할 때	거짓말할 때	차이 없음	$\chi^2$	본 연구 신념	실제 지표
		더 많이 나타남	더 적게 나타남				
말을 머뭇거림	경찰관	74.6	8.2	15.6	17.55***	>	>
	대학생	50.0	15.6	34.4			
말실수	경찰관	82.0	4.9	13.1	3.59	>	>
	대학생	72.5	8.8	18.8			
목소리 톤	경찰관	58.2	21.3	20.5	15.32*	>	>
	대학생	64.4	7.5	28.1			
말의 속도	경찰관	52.5	31.1	16.4	19.02***	>	<
	대학생	53.5	13.8	32.7			
응답 지연시간	경찰관	73.0	13.1	13.9	18.08***	>	-
	대학생	49.4	24.4	26.3			
침묵 기간	경찰관	57.4	26.2	16.4	12.04*	>	>
	대학생	41.3	27.5	31.3			
침묵 빈도	경찰관	57.4	27.0	15.6	9.47*	>	>
	대학생	47.5	23.1	29.4			

주. \* $p<.05$ , \*\* $p<.001$ , \*\*\* $p<.0001$

> 거짓말에서 더 많이 나타남, < 거짓말에서 더 적게 나타남, - 진실과 거짓말이 차이 없음. 실제 지표는 Vrij & Mann(2001)의 살인 용의자 연구에서 나온 결과임.

진실 두 경우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상당 수 있었다. 경찰관의 경우에는 목소리톤이 거짓말할 때 오히려 감소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대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2)=15.32, p<.05$ ).

경찰관과 대학생들이 거짓말의 음성적 특징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Mann, Vrij, 그리고 Bull(2002)이 범죄 용의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경찰관과 대학생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거짓말의 음성적 특징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대부분 실제 거짓말을 하는 범죄 용의자에게서도 관찰되었다. 실제 거짓말을 하는 범죄 용의자의 행동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신념이 불일치한 부분은 말의 속도와 응답 지연시간이었다. Mann 등(2002)의 연구에서 실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려졌으며 응답지연시간에서는

거짓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 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든 거짓말의 음성적인 특징은 진실을 말할 때 보다 거짓말 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은 실제 지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말의 속도’와 ‘응답 지연시간’은 실제 지표와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과 경찰관은 거짓말 할 때 말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믿고 있는 반면, 실제 지표에서는 거짓말할 때 오히려 말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지연시간’은 실제로 거짓말을 할 때와 사실을 말할 때 차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대학생과 경찰관 모두 거짓말을 할 때 응답 지연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거짓말의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

거짓말의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몇

표 8. 거짓말의 비언어적 특징에 관한 신념 (단위 : %)

		거짓말 할 때	거짓말 할 때	차이 없음	$\chi^2$	본 연구 신념	실제 지표
		더 많이 나타남	더 적게 나타남				
눈 마주치기	경찰관	13.1	82.8	4.1	6.26*	<	-
	대학생	8.8	79.4	11.9			
미소	경찰관	32.8	55.7	11.5	17.14***	<, >	-
	대학생	45.0	31.9	23.1			
정돈 행동	경찰관	81.1	6.6	12.3	4.63	>	-
	대학생	75.0	3.8	21.3			
설명적 손동작	경찰관	59.8	22.1	18.0	16.84**	>	<
	대학생	54.4	10.0	35.6			
손/손가락 움직임	경찰관	74.6	7.4	18.0	11.48*	>	-
	대학생	56.9	6.9	36.3			
다리/발 움직임	경찰관	76.2	6.6	17.2	14.72*	>	<
	대학생	58.1	5.6	36.3			
몸통 움직임	경찰관	68.0	13.1	18.9	31.97***	>, -	<
	대학생	39.0	9.4	51.6			
머리 움직임	경찰관	54.9	25.4	18.7	19.68***	>, -	-
	대학생	41.3	14.4	44.4			
자세 바꾸기	경찰관	77.7	9.8	13.1	18.67***	>	-
	대학생	58.8	5.6	35.6			
눈 깜박임	경찰관	80.3	4.1	15.6	8.96*	>	-
	대학생	66.3	8.8	25.0			

주. \* $p<.05$ , \*\* $p<.001$ , \*\*\* $p<.0001$

> 거짓말에서 더 많이 나타남, < 거짓말에서 더 적게 나타남, - 진실과 거짓말이 차이 없음.

실제 지표는 Vrij & Mann(2001)의 살인 용의자 연구에서 나온 결과임.



가지 범주를 제외하고 경찰관과 대학생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과 대학생들은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과 눈을 덜 마주치고, 눈 깜박임이 증가하며, 자기 정돈 행동이 증가하며, 설명적 손동작도 증가한다고 생각하였다. 응답자들은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 발과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자세 바꾸기도 거짓말을 할 때 증가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소, 몸통의 움직임, 머리 움직임 등에서는 경찰관과 대학생 집단간에 신념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거짓말을 할 때 미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반면, 경찰관들은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미소가 감소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거짓말을 하면 몸통과 머리의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대학생들은 거짓말이나 진실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찰관과 대학생들의 거짓말의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에서 응답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미소를 제외하면 모두 '차이 없음'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은 거짓말과 진실간에 비언어적 특징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경찰관 집단보다 높았다.

거짓말의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Mann 등이 실제 거짓말을 하는 범죄 용의자에게서 관찰한 특징과 비교해보았다. 실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유의미하게 관찰된 비언어적 행동 특징은 설명적 동작이 감소하고, 다리/발과 몸통의 움직임이 감소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경찰관과 대학생들이 보여준 거짓말의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은 모두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설명적 손동작이 오히려 증가하며 다리/발의 움직임과 몸통의 움직임도 증가한다고 믿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눈 깜박임, 응시 회피, 미소 등 다른 모든 비언어적 행동 징후들이 거짓말 할 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사실 진술과 허위 진술의 내용에 관한 신념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CBCA의 준거들은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진술 내용의 신념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19개의 CBCA 준거들 중 10개의 준거(1번 일관성, 4번 문맥상 깊이, 5번 상호작용 기술, 6번 이야기의 재현, 8번 독특한 세부묘사, 12번 주관적인 정신상태 평가, 13번 가해자 정신상태 귀인, 17번 자기 비난, 18번 가해자 용서, 19번 범행 특징의 세부묘사)는 대학생과 경찰관 모두 거짓 진술보다는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2번(구조화 되지 않은 제시), 16번(자기의 진술에 대한 의심 제기), 7번(예기치 않은 분규), 9번(부가적인 세부묘사), 10번(잘못 이해된 세부묘사), 그리고 14번(자발적인 수정) 준거는 오히려 허위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믿었다. CBCA 준거에 대한 신념은 대학생과 경찰관이 매우 유사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준거들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대학생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단지 15번(기억의 부족 시인) 준거에 대해서는 경찰관 집단은 거짓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50.4%)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들은 사실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53.5%)고 응답하였다. 또한 3번(세부묘사의 양) 준거의 경우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실적인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73.8%)고 믿고 있는 반면 대학생의 경우 사실적인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47.8%)와 허위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45.9%)라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과 경찰관의 CBCA 준거에 관한 신념을 외국에서 실시된 두 개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Akehurst 등(1996)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단지 세 개의 준거(1번, 3번, 13번)에서만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믿었으며, Taylor와 Vrij(1999) 연구의 응답자들은 단지 두 개(16번, 17번)만이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12개 준거가 거짓 진술보다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기존 연구 결과보다 우리나라 경찰관과 대학생이 더 정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BCA 준거에 대한 신념을 연구한 기존 두 개의 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9번(부가적인 세부묘사)과 14번(자발적인 수정)은 세 연구의 응답자 모두 동일하게 거짓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번(예기치 않은 사건)의 경우 세 연구의 응답자들

표 9. CBCA 범주에 관한 신념 결과 (단위 : %)

		사실적 진술에 허위 진술에 차이 없다			x <sup>2</sup>	본 연구 결과	선행연구	
		더 많다	더 많다	차이 없다			1	2
1. 일관성	경찰관	86.8	14.8	2.5	6.87*	>	>	-
	대학생	73.1	16.9	10.0				
2.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경찰관	13.9	83.6	2.5	6.61*	<	<	-
	대학생	22.0	71.1	6.9				
3. 세부묘사의 양	경찰관	73.8	24.6	1.6	19.94***	>, -	>	-
	대학생	47.8	45.9	6.3				
4. 문맥상 깊이	경찰관	77.9	21.3	0.8	9.40**	>	-	<
	대학생	62.9	31.4	5.7				
5. 상호작용 기술	경찰관	78.7	18.0	3.3	10.72**	>	-	×
	대학생	61.6	27.7	10.7				
6. 이야기의 재현	경찰관	69.7	27.0	3.3	12.7**	>	<	×
	대학생	52.2	38.4	9.4				
7. 예기치 않은 일 발생	경찰관	30.3	65.6	4.1	5.16	<	<	<
	대학생	35.2	54.7	10.1				
8. 독특한 세부묘사	경찰관	67.2	28.7	4.1	5.16	>	<	<
	대학생	54.1	41.5	4.4				
9. 부가적인 세부묘사	경찰관	23.0	74.6	2.5	1.16	<	<	<
	대학생	18.2	77.4	4.4				
10. 잘못 이해된 세부묘사	경찰관	33.1	60.3	6.6	7.85*	<	×	×
	대학생	37.7	48.4	13.8				
11. 관련된 외적 연합	경찰관	43.3	47.9	5.8	5.32	<	×	×
	대학생	37.1	52.8	10.1				
12. 주관적 정신 상태 평가	경찰관	76.0	21.5	2.5	6.79*	>	<	×
	대학생	64.2	27.0	8.8				
13. 가해자 정신상태에 귀인	경찰관	65.0	30.0	5.0	4.63	>	>	×
	대학생	53.5	36.5	10.1				
14. 자발적인 수정	경찰관	32.5	64.2	3.3	0.7	<	<	<
	대학생	28.3	67.3	4.4				
15. 기억의 부족을 시인	경찰관	46.3	50.4	3.3	8.24**	<,>	<	<
	대학생	53.5	36.5	10.1				
16. 자신의 진술에 의심 제기	경찰관	37.8	58.0	4.2	4.97	<	<	>
	대학생	40.9	48.4	10.7				
17. 자기 비난	경찰관	64.2	27.5	8.3	12.32**	>	-	>
	대학생	42.8	40.9	16.4				
18. 가해자를 용서	경찰관	65.0	28.3	6.7	12.92**	>	×	×
	대학생	47.8	43.4	8.8				
19. 범행 특징의 세부묘사	경찰관	65.0	28.3	6.7	8.26**	>	×	×
	대학생	47.8	43.4	8.8				

주. \* $p < .05$ , \*\* $p < .001$ , \*\*\* $p < .0001$

1= Akehurst et al.(1996)의 연구 결과, 2= Taylor & Vrij(1999)의 연구 결과  
 > 사실적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남, < 허위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남, - 차이 없다, × 연구되지 않음

이 공통적으로 거짓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 연구에서는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믿는  
 다. 그러나 8번(독특한 세부묘사)의 경우 기존 두 연구에 것으로 나타났다.  
 서는 거짓 진술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된 반면 본

## 논 의

본 연구는 경찰관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거짓말에 대한 신념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적 특징과 CBCA 준거에 대한 특징들은 비교적 정확하였으나,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신념은 실제 지표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말에 대한 신념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대학생과 경찰관의 거짓 단서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진술 내용에 대한 신념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록 대학생과 경찰관이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경찰관은 대학생보다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한 수가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거짓말의 단서에 대한 특징이 옳던지 그르던지 간에 거짓말의 단서가 더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다.

Vrij(2000)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동안에 불안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거짓말이 탄로 난 경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반화시키고 거짓말에 대한 어떠한 신념을 만들게 한다. 둘째, 우리는 거짓말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 실제 행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거짓을 탐지할 때도 자신이 기대하는 단서만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한 장면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 실제 위험이 높은 거짓말에서는 이러한 불안의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나, 위험이 적은 거짓말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거짓말하는 상황에 동일한 불안을 기대한다.

거짓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종종 실제 속임을 탐지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비언어적인 단서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단서에 의존하여 타인의 거짓말을 탐지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더욱 크다. 거짓말 탐지는 화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특징과 더불어 진술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거짓말에 대한 신뢰로운 언어적, 비언어

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개인차로 인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거짓말쟁이를 잘 탐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한다(Ekman & O'Sullivan, 1991). 거짓말을 하면 코가 간지러워진다는지, 방어적인 자세로 앉게 된다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달라진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무수한 신념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한 두 개의 단서에 의존하여 타인의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사관과 같이 판단의 결과가 상대방의 안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거짓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거기에 의존한다면 그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증폭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설문의 참가자가 실제 자신이 거짓말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 그리고 진술의 특징을 보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념과 실제 거짓 판단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CBCA의 경우 각 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단지 짧은 예시로 각 준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 CBCA 준거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대안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선행 신념연구의 응답자들보다 더 정확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CBCA 준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온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단지 경찰관과 대학생 집단만이 설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거짓말 탐지의 전문요원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대학생 역시 일반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조사계 경찰관과 대학생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념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표로 Vrij와 Mann(2001)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Vrij와 Mann의 연구는 높은 이해득실(high-stake) 상황에서 실제 거짓말을 하는 범죄자들을 연구하였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인위적인 연구 결과보다 좀 더 신뢰로울 수 있으나, 이 역시 완

벽하게 거짓말의 지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많은 연구의 결과는 ‘피노키오의 성장하는 코’와 같은 거짓말의 실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Vrij,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과 경찰관의 신념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지표와 무관하게 경찰관과 대학생의 거짓말에 대한 신념을 살펴보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한 신념은 외국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신념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해 본 것에 그 가치가 있다. 속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종종 실제 거짓말을 탐지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비언어적 단서에 의존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려고 할 때 실패할 확률이 크다. 거짓말 탐지는 화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특징과 더불어 진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거짓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짓 탐지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수사경력과 거짓 탐지의 정확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 Ekman & O’Sullivan, 1991). 하지만 거짓말 탐지 능력은 훈련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거짓탐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이다. Porter, Woodworth, 그리고 Birt(2000)는 32명의 가석방심의관들에게 이틀간 정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수반한 거짓말 탐지 훈련을 실시한 결과 정확도가 40.4%에서 76.7%로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부정확한 거짓말 신념이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피드백에 기초하여 복잡한 단서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실시한다면 거짓말 탐지도 신비와 기교의 영역에서 실증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 참 고 문 헌

- 송광섭 (1997).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방법과 그 유용성 및 정확성. *法學研究*, 14, 75-107.
- 조은경 (2002).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33-65.
- Akehurst, L., Köhnken, G., Vrij, A., & Bull, R. (1996). Lay persons' and Police officers' beliefs regarding deceptive behaviou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0, 461-471.
- DePaulo, B. M., & Pfeifer, R. L. (1986). On-the-job experience and skill at detecting decep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249-267.
- Ekman, P. (2001). *Telling lies : Clues to deceit in the marketplace, politics, and marriage*. New York : Norton and Company.
- Ekman, P., & O' Sullivan, M. (1991). Who Can Catch a Liar? *American Psychologist*, 46(9), 913-920.
- Ekman, P., O' Sullivan, M., Friesen, W. V., & Scherer, K. R. (1991). Invited article : Face, voice, and body in detecting deceit.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5, 125-135.
- Harrigan, J. A., & O' Connell, D. M. (1996). Facial movements during anxiety st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205-212.
- Köhnken, G. (1987). Training police officers to detect deceptive eyewitness statements : Does it work? *Social Behaviour*, 2, 1-17.
- Kraut, R. E., & Poe, D. (1980). On the line : The deception judgement of customs inspectors and lay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84-798.
- Mann, S., Vrij, A., & Bull, R. (2002). Suspects, lies and videotape : An analysis of authentic high-stakes liars. *Law and Human Behaviour*, 26, 365-376.
- Porter, S., Woodworth, M., & Birt, A. R. (2000). Truth, lies, and videotape : An investigation of the ability of federal parole officers to detect deception. *Law and Human Behavior*, 24, 643-658.
- Steller, M. (1989). Recent developments in statement analysis. In J. C. Yuille (Ed.), *Credibility assessment* (pp. 135-154). Deventer : Kluwer.
- Taylor, R., & Vrij, A. (1999). The effects of varying stake and cognitive complexity on beliefs about the cues to decep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Undeutsch, U. (1984). Courtroom evaluation of eyewitness

- testimon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3, 51-67.
- Vrij, A., & Semin, G. R. (1996). Lie experts's beliefs about nonverbal indicators of decep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0(1), 65-80.
- Vrij, A. (2000) *Detecting Lies and Deceit*.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Ltd.
- Vrij, A., & Mann, A. (2001). Telling and detecting lies in a high-stake situation : The case of a Convicted Murdere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187-203.
- Vrij, A. (2004). Why professionals fail to catch liars and how they can improve.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59-181.
- Vrij, A. (2005).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irst 37 studi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1), 3-41.
- Wallbott, H. G., & Scherer, K. R. (1991). Stress specifics : Differential effects of coping style, gender, and type of stressor on automatic arousal, facial expression, and subjec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47-156.

K C I

## **Beliefs About Lying : Comparis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llege Students**

**Eunkyung Jo    Mi Sun Lee    Jae Hong Kim**  
**Hallym University**

One hundred twenty two police officers and 160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on their beliefs about vocal and nonverbal characteristics of lying. Beliefs about the content of deceptive statements were also assessed using 19 criteria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CBCA). Both police officers and college students thought their own lies were not likely to be detected but they were not very confident of detecting other people's lying. Police officers and college students shared similar beliefs regarding vocal and nonverbal characteristics of lying. Compared to actual behavior of deceptive criminal suspects, participants' beliefs on vocal characteristics were relatively accurate whereas those about nonverbal characteristics and statement content of deceptive statements were relatively inaccurate. Both groups accurately believed some criteria of CBCA would appear more often in truthful statements than in deceptive statements, although they thought other CBCA criteria would appear more often in deceptive statements. Overall th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from western countries. Dangers of relying on incorrect beliefs in making interpersonal judgments, especially for police officers, were discussed.

**Key words : lying, deception, beliefs about lying, police officer**

원고접수 : 2005년 1월 6일  
심사통과 : 2005년 2월 15일